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 무너진 최강 에이스 윤석민 부활할까



### 최악시즌... 오늘 한화전 전반기 마무리 등판 부담 덜고 자신감 회복, 시즌 선발 첫 승 기대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 17일 무등 경기장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팀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이자 윤석민의 올 시즌 선발 첫 승

을 위한 경기이다. 어깨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던 윤석민은 지난 5월4일 넥센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뒤 1승 3패 1홀드를 기록하고 있다. 불펜에서 위밍업에 나선 뒤 8차례 선발로 등판했지

만 승이 3패만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4.53, 피홈런도 7개를 허용하는 등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전반기였다. 1위가 아닌 4강 싸움을 하고 있는 팀 상황과 자신의 성적을 생각하면 17일 한화전은 윤석민에게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 하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윤석민은 "밸런스 잡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던지다 보면 밸런스에 대한 감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더서 마음이 급하다.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에는 아쉬움이 없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고 말했다. 걱정은 되지만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경기다. 윤석민은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게 가장 아쉽고 미안하다. 기분 좋게 전반기를 마감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아직 선발승도 없는데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한, 아쉬움 없는 경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어깨부상이 윤석민에게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윤석민은 "어깨가 부상 때처럼 아프거나 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부상 재발에 대한 걱정 등 심리적인 부분이 피칭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부담감을 빨리 털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구상과는 전혀 다른 2013시즌이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과정인 만큼 차분하게 후반기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윤석민은 "당장 예전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시즌을 준비하고 보낼 생각이다. 해외진출이든 FA(자유계약)든 최선을 다하고 나서 생각할 부분이다"며 "전반기는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후반기에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녀들의 해변 결투

16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2013 세계여자비치발리볼 코리아 투어 한국B팀 대 호주 경기. 한국 한유미(오른쪽)와 호주 선수가 공을 다투고 있다. /연남스

## 차명진·정기훈 태극마크 달다

〈순천 효천고〉 〈광주일고〉

### 내달 개막 세계 청소년 야구선수권 출전

순천 효천고 투수 차명진과 광주일고 내야수 정기훈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제 26회 세계 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팀 감독과 엔트리 명단이 지난 15일 확정됐다. 대표팀은 투수 8명, 포수 2명, 내야수 7명, 외야수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투수교 김성용·장종고 송민수 감독이 코치를 맡는다. KIA 1차 지명을 받은 효천고 차명진과 광주일고 주장 정기훈도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무대를 밟는다. 5년 만의 우승 도전이다. 한국은 안치홍(KIA·서울고), 허경민(두산·광주일고), 오지환(LG·경기고), 김상수(삼성·경북고), 정수빈(두산·유신고)이 대표팀을 구성했던 지난 2008년 캐나다에서 열린 제 24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다. 차명진은 188cm의 장신에서 내리꽂는 강속구와 함께 슬라이더와 커브 등을 변화구로 앞세워 국가대표 마운드에 서게 된다. KIA로부터 1차 지명을 받은 데 이어 대표팀에도 선발되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차명진은 "태극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다. 승부를 해봤던 선수들이 아닌 다른 선수들과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 설렌다"고 대표팀 발탁 소감을 밝혔다. 미국 타자들과의 승부는

가장 걱정되면서도 기대되는 승부다. 차명진은 "과워 있는 미국 쪽 타자들이 까나로울 것 같다. 마운드에 서서 다른 선수들을 상대하는 것은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다"며 "5년 만의 우승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팀에 가서 다른 친구들과 꼭 우승시키고 오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정기훈의 목표도 역시 우승. 많이 보고 배우고 오겠다는 생각이다. 정기훈은 "공격적으로 치는 스타일이라 올 시즌 타율 관리를 못해서 기대를 못했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데 기분이 좋다"며 "대표팀 가서 일단 주전 경쟁을 해야한다. 열심히 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가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배우고 오겠다. 일본은 꼭 이기고 싶다.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기훈의 가장 큰 장점은 수비.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정기훈은 "지난해 수비 실수를 많이 해서 황급사자기에 떨어졌었다. 아침 7시30분부터 한 달 내내 수비 훈련을 했다. 동계훈련 때도 수비에 집중을 하면서 연습했다. 발이 빠른 편이 아니지만 핸들링에 자신 있다. 플라이 타구 처리도 그렇고 수비가 가장 큰 장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8월 30일 개막해 9월 8일까지 대만에서 열린다. 12개국(A조-캐나다·대만·일본·베네수엘라·체코·멕시코, B조-한국·미국·콜롬비아·호주·이탈리아·쿠바)이 참가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부천FC에 '역전드라마'

### 0대2→1대2→2대2→3대2 승

광주 FC가 기분 좋은 승리와 함께 달콤한 휴식에 들어갔다. 광주 FC가 지난 15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챌린지 17라운드 부천 FC와의 원정경기에서 3-2 역전승을 거뒀다. 서울과의 FA컵에 이은 또 다른 광주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광주는 전반전에만 2실점 하며 흔들렸지만 1-2로 뒤진 후반전 해설사 김호남을 앞세워 동점골과 역전골을 만들어 극적인 승부를 연출했다. 승점 3점을 더한 광주(7승4무6패·승점 25)는 4위 안양 FC(6승4무6패·승점 22)와의 격차를 벌이며 느긋한 휴식기를 맞게 됐다. 지난 10일 FC 서울과 120분간의 FA컵 연장혈투를 벌였던 만큼 경기초반 광주가 체력과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이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이호권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광주는 점차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반격을 준비했다. 전반 22분 김은선의 왼발 슈팅이 골 포스트를 맞고 나갔지만 3분 뒤 공격에서는 부천의 골망이 흔들렸다.

골키퍼 김지성이 길게 차올린 골 킱을 루시오가 받아서 김호남에게 연결했다. 김호남이 발꿈치로 내준 공은 안동혁에게 향했고 마지막으로 김은선의 왼발에 걸리면서 동점골이 완성됐다. 하지만 27분 공민혁을 막지 못하면서 다시 부천이 앞서나갔다. 후반 10분 광주 여범규 감독이 정경호와 안동혁을 대신해 여름과 김준엽을 투입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기동력 강화는 8분 뒤 골로 나타났다. 페널티 박스에서 루시오가 짝어 올린 크로스를 김호남이 쏘아대면서 해딩골을 만들었다.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 성공한 광주는 계속해서 부천을 몰아붙이며 골 사냥에 나섰다. 후반 34분 김수범과 김호남이 역전골을 합작했다. 공을 가로챈 김수범이 김호남과 패스를 주고 받으며 부천 진영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다. 김수범은 상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날리며 역전극에 마침표를 찍었다. 달콤한 승리와 함께 A매치 휴식기를 맞은 광주는 내달 4일 오후 7시 고양 FC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순위 싸움에 재시동을 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